

# 몸을 위한 생명의 체험과 성장과 사역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 생명의 성장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과 마음을 처리함으로 생명이 자람

성경: 엡 4:13, 15-16, 고전 3:6, 마 5:8, 롬 17:9, 엡 3:17

I.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성장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장이 부족하다면 회복이 전진할 길이 없을 것이고, 결국 우리는 기독교의 상황으로 다시 떠나려가 기독교의 슬픈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 엡 4:11-16, 마 13:31-33, 담후 3:1-4.

II.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 — 엡 4:13, 15-16.

- A. 성장이 없다면, 이것은 생명이 없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한다 — 고전 3:6, 14:20, 16:13.
- B. 어떤 지방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상의 길은, 성도들의 주의를 생명의 성장에 돌리는 것이다 — 요 6:57, 뵤전 2:2-3.
- C. 생명의 성장이 교회생활의 실행에서 최우선의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엡 4:13, 15-16.

III. 우리는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A.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안에서 증가하는 것이다 — 엡 3:19.
- B.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신장의 분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를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릴수록, 그리스도의 신장의 분량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생명의 성장이다 — 갈 2:20, 4:19, 엡 3:17, 4:13.
- C. 생명의 성장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입지가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기쁨 바름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성령은 그분의 입지를 넓게 확장하실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크게 자랄 것이다 — 롬 8:11, 엡 5:18, 요일 2:20, 27.
- D. 생명의 성장은 사람의 요소가 감소하는 것, 곧 사람의 맛이 감소하고 하나님의 맛이 증가하는 것이다 — 마 16:25, 요 12:25.
- E. 생명의 성장은 타고난 생명이 파쇄되는 것, 곧 우리의 기능과 능력과 역량이 파쇄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기를 갈망한다면, 우리의 은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벗겨져야만 하고, 우리의 경건과 독실함이라는 껍질은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만 한다 — 고후 4:16-17.
- F. 생명의 성장은 혼의 모든 부분이 굴복되는 것이다. 우리의 혼이 굴복될수록 생명은 더욱더 자라며, 우리의 혼이 감소될수록 생명은 더욱더 증가한다 — 요 12:24-25.

IV. 합당한 생명의 성장은 오직 주님을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에서만 비롯된다 — 고후 3:18.

- A. 생명의 성장은 그분의 살아 있는 빛 비추심과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분의 즉각적인 지적하심으로부터 비롯된다 — 요일 1:5.
  - 1.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의 빛 비추심에 따라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즉각적인 현재의 비추심에 따라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 2. 이러한 기도는 생명의 성장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성장에서 큰 진보를 갖게 될 것이다 — 고전 3:6, 엡 4:15.
- B. 우리는 모두 주님께 나아가, 생명의 성장에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특별하게 주님을 직접 접촉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속의 무언가가 죽임당하고 제거될 것이며,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 시 36:9.

**V. 우리는 마음을 처리함으로써 생명이 자란다 — 마 5:8, 약 4:8, 엡 3:17.**

- A.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으로 받아들인 후에 마음이 순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자라시고 확장되실 수 있는 발이기 때문이다 — 고전 6:17, 마 5:3, 8.
  - 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뿌려지신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라시고 확장되시기 위해서이다.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확장되시는 것이다 — 엡 3:17.
  - 2.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기를 갈망하신다 — 엡 3:17.
  - 3. 많은 믿는 이들의 성장을 제한하는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다 — 마 6:21, 12:34-35, 13:15, 15:8, 22:37.
  - 4.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 길이 없으실 것이다 — 마 15:8.
    - a.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와 18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주님은 처음 세 종류의 마음에는 씨가 자라고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씨가 그런 마음 안에서는 자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
    - b.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의 여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 c.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라시려면, 우리는 순수하고 점유되지 않은 마음, 곧 작은 모든 부분까지도 그리스도께 드리진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 수 있다. 그분의 확장이 생명의 성장이다 — 마 5:8, 엡 3:17.
- B.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수하게 하십시오!” — 약 4:8.
  - 1.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일하게 하여 오직 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를 초과한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은 것이며,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 마 5:8.
  - 2.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고 순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마 5:8, 막 12:30.
  - 3.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 히 13:9, 고전 15:10.
  - 4.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고 우리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 길을 얻으실 것이다 — 마 6:21, 15:8.
- C.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는 것은 주님의 빛 비춤에 따른 것이며, 그분의 빛 비춤은 점진적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항목들을 처리함에 따라, 주님은 그분의 빛 비춤을 점차적으로 강화시키신다. 그 결과로 매번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철저히 점검받고 순수하게 된다 — 고후 4:6, 요일 1:5, 계 4:5.

- D. “만물보다 거짓되고 치유될 수 없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 렘 17:9.
1.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렵다.
  2. 우리 마음의 거짓됨의 단면이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동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시기가 어렵다 — 딤후 3:2.
  3. 주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오랜 세월 동안 계셨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섞여 있고 혼란되고 거짓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확장되실 기회를 얻지 못하셨을 것이다 — 딤후 4:22, 렘 17:9, 엡 3:17.
- E. 참된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것이다 — 골 2:19.
1. 그러한 성장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실 길을 얻으실 것이다 — 약 4:8, 마 5:8, 엡 3:17.
  2.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고, 현재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혼 안으로 확장하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 — 요 3:6, 고전 6:17, 엡 3:17, 살전 3:13.
  3.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확장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것이 참된 생명의 성장이다 — 골 2:19, 엡 4:15.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마음을 처리함으로 생명이 자람

하나님께서 우리 속 부분들 안으로 그분의 법들을 새겨주시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 양심을 통해 그분께서 비추시는 빛 아래서 하는 자백과 함께 한다. 우리가 자신의 실패와 잘못과 약함을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심으로 우리 속 부분들 안으로 그분의 요소들을 새기실 기회를 더욱더 드린다. 우리 속 부분들 안으로 놓여진 신성한 요소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규제하는 법들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은 결국 우리를 항상 규제하는 내적인 법이 된다. 이러한 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에 있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터가 굳어진다(살전 3:13). 이런 거룩함은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체 하는 것도 아니다. 그와는 달리 그것은 우리 안으로 놓여지신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이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에 있어서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새 마음을 갖는다(겔 36:26).

### 마음의 위치와 기능

#### 마음은 우리 존재의 입구와 출구임

이번 장에서 우리는 마음의 위치와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한다. 여기서 ‘근원’은 원천이란 뜻과 더불어 유출 또는 나옴이란 뜻도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비교 마 12:34-35, 15:18-19). 우리의 존재의 어찌함, 우리의 참 존재의 근원, 원천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입구인 것 못지않게 출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존재의 방어막이자 불침번이다. 우리는 모든 경계를 다 동원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존재 전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비원이 건물을 지키는 때 주로 건물 입구에 자리를 잡고 지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잠자리에 들거나 집을 떠난다. 이것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 입구와 출구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우리 존재를 지키고자 하면 입과 눈과 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 존재의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잠자리에 들거나 집을 떠날 때 집 문을 조금 열어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침입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신경을 쓰지 않을 때, 그것은 온갖 자질구레한 ‘마귀들’이 마음에 들어올 길을 열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집 문을 잠글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도 ‘자물쇠를 채워’ 온갖 ‘세균’이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자물쇠를 채워야 할 때가 종종 있지만, 우리는 또한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도 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는 마음을 잠가 두어야 하지만, 주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려야 한다.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서, 어떻게 원수에게는 마음을 잠그고 주님께는 열어 드리는지를 배워야 한다. 합당하고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부정적인 모든 것에는 얼른 문을 잠그고,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하늘에 속한 것들에는 기꺼이 문을 여는 마음이 필요하다.

### 생명의 교통과 마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음과 같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만졌습시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성한 생명에 대해 말하고, 이어 생명의 교통을 말한다.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책인 반면 요한일서는 생명의 교통에 관한 책이다. 이 서신 처음 부분에서 생명이 증언되고 전해지며 선포된다(1-2절). 이 생명이 받아들여질 때, 생명과 함께 교통도 따라오게 된다(3절). 따라서 요한일서 1장에 따르면 생명은 교통을 가져온다.

### 생명의 교통

요한일서는 교리적인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생명의 체험에 따라 쓰여졌다.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

인 후, 우리 안에는 주님과 다른 믿는 이들을 접촉하고 싶은 성향과 갈망이 생겨난다. 이런 성향과 갈망이 생명과 함께 오는 교통이다. 생명은 교통을 산출하고, 교통은 생명에서 나온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교통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드러나서 빛 가운데로 이끌린다. 따라서 교통은 빛을 가져온다. 많은 때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소그룹 모임에서든, 성도들을 접촉할 때나 교회 집회에 참석할 때 빛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가 몇몇 성도들이 교통을 나누고 있는 방에 들어갈 때, 그들 중 누구도 우리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빛 비춤이 있고, 자신이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교통의 결과는 빛이고, 빛은 우리의 상황을 비추며 드러낸다.

빛 비춤은 직접 주님을 접촉할 때 훨씬 더 강렬하다. 우리는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느끼는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을 접촉하는 그 순간, 빛이 비추어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요한일서 1장에는 생명과 교통과 빛과 피로 이루어지는,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한 과정이 있다. 생명은 교통을 가져오고, 교통은 우리를 빛 안으로 이끌며, 빛은 우리의 상태를 폭로하여 우리로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는 피를 적용하게 한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에서 피의 깨끗하게 함을 체험한 후에, 2장에서 기름 바름을 갖는다(20, 27절). 피의 적용, 피의 뿌려짐이 있을 때 기름 바름이 있다(출 29:20-21, 레 8:23-24, 30). 따라서 생명은 교통을 가져오고, 빛 비춤은 교통에서 비롯되며, 빛은 피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피 뿌림은 기름 바름이 적용될 길을 열어 준다. 이 다섯 가지 항목, 곧 생명과 교통과 빛과 피와 기름 바름은 나열된 순서로 계속해서 순환한다.

### **생명의 교통은 마음에 의해 지켜짐**

과거에 우리는 신성한 영 그리고 사람의 영과 생명의 교통 사이의 관계를 강조해 왔지만, 생명의 교통과 우리의 마음의 관계를 살펴보지는 않았다. 그 결과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음은 생명이나 교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관념과는 달리, 요한일서는 생명의 교통이 우리의 마음에 의해 보존되고 지켜짐을 보여 준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기름 바름을 말한 후에 3장은 마음에 대해 말한다. 3장 20절과 21절은 다음과 같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표한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유죄 판결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대표하는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므로, 당연히 우리를 유죄 판결하실 것이다. 우리의 영의 일부일 뿐 아니라 마음의 일부이기도 한 양심 안에 있는, 유죄 판결에 대한 이러한 지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질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는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주의한다면, 이러한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도움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 거하도록 지켜질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사들 중에는 요한일서의 생명의 교통에 관해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 바름과 피에 대해 훌륭한 책을 쓴 이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생명과 생명의 교통을 마음과 한 묶음으로 다룬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책을 발견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는 생명의 교통이 우리의 마음에 의해 보존되고 지켜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우리의 마음이 틀렸다면, 주님과 갖는 교통도 끊길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9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비방이나 유죄 판결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함으로써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곧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간직하여(딤후 1:5, 19, 행 24:16)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확신을 갖게 되며, 안심하고, 잠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유죄 판결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게 보전되고 있지 않음을 가리킨다.

교통은 영 안에 있는 문제이지만(고후 13:14, 빌 2:1)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마음이다. 많은 사랑스런 성도들이 모든 경계를 기울여 마음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교통이 단절되는 손상을 입어 왔다. 우리는 요한일서에 있는 마음의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장은 생명의 교통에 대해 말하고, 2장은 기름 바름에 대해 말하며, 3장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당한 마음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부주의하여 마음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마음 안에서도 아무런 유죄 판결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얼마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양심에 유죄 판결이 가득함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의 양심에 있는 책망은 마음에 있는 유죄 판결이다. 왜냐하면 양심은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라고 말한다. 악한 양심은 온통 책망을 느끼는 양심이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죄를 자백하여 주님의 용서와 그분의 피의 깨끗하게 함을 받음으로써 양심 안에 있는 책망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합당하게 지키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되고, 온갖 ‘세균들,’ 곧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회복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처리해야 한다. 교통을 가지려면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하지만, 이 교통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어떤 죄들은 사소한 것들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깨달아야 할 점은 주님과 성도들과의 교통은 섬세한 일이기 때문에 극히 작은 죄들도 교통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더 나이 든 한 형제가 더 젊은 어떤 형제에게 비판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 들 수가 있다. 나이 든 형제가 이 사소한 문제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면, 자신의 영에 죽음이 엄습함을 느낄 것이고, 점차 주님과 성도들과 갖는 교통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결코 속일 수 없다. 이 나이 든 형제가 그 젊은 형제와 교통을 가지려고 할 때, 그는 그를 사랑하고 그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태도를 꾸밀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젊은 형제가 영을 훈련하고 어떤 유죄 판결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나이 든 형제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그 나이 든 형제의 깊은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 그들 사이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영 안에서 느낄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두 형제가 대화를 계속

할수록 둘 사이의 교통은 더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앞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나이 든 형제가 젊은 형제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젊은 형제는 이것은 교통이 아니라는 느낌을 더더욱 가질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나이 든 형제의 마음이 틀렸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겉으로 연기한다고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통과하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나이 든 형제가 말할 때, 그의 영이 문제가 있는 그의 마음을 통과해 나간다. 젊은 형제가 나이 든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하지만 나이 든 형제의 마음을 통과해 나오는 그의 영에 주의하면 분명히 알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어떤 영이 나오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유죄 판결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영은 교통의 영이 아닐 것이다.

### 주님 앞에서 마음을 처리함으로써 마음을 지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이런 처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처리할수록 마음을 더 지키게 된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합당히 처리되면, 마음은 순수하고 단일하며 정직하고 신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열 필요가 있을 때는 쉽게 열리고 닫을 필요가 있을 때는 쉽게 닫힌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과 성도들에게 열어서 교통을 가질 수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형제와 교통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 형제의 마음에는 교통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없을 수 있다. 그 형제가 마음을 열도록 우리는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돌파할 길이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우리 자신이 마음을 열어 다른 이들과 교통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는 주로 마음을 돌보는 것을 오랫동안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는 이가 주님과 교회와 다른 믿는 이들과 교통을 잃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생명과 교통과 빛과 피와 기름 바름의 항목들을 제시한 후에, 생명의 교통에 관한 책인 요한일서는 교통을 보존하는 보호막이자 기관으로 마음을 제시한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방식으로 마음을 처리하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참 존재는 마음을 통해 나온다. 우리 존재의 실지적인 통행은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의 영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지만, 마음은 통로이자 입구와 출구로서, 이곳을 통해 우리의 존재 안에 오고감이 이루어진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온갖 경계를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지킬 필요가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1권, 영문판, 431-437쪽*)